

크로아티아의 아드리아 해안을 여행하다

푸른 지중해와 거친 해안 절벽을 아우른 자연 속에서
강인하면서도 낭만적 문화를 일궈온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부터 크바르네르까지
크로아티아의 아드리아 해안을 따라 에메랄드빛의 여행을 음미한다.

글·사진
취재 협조

하태우
크로아티아관광청(CNTB)

Journeying along Croatia's Adriatic Coast, from Dubrovnik to Kvarner

Opatija
Rijeka
Krk

Split

Croatia

Ston

Dubrovnik

Adriatic Sea

Dubrovnik

두브로브니크

1 구시가를 둘러싼 약 1.9km 길이의 성벽으로, 13세기부터 17세기에 걸쳐 완성됐다. 성벽과 로브리예낙 요새, 주요 박물관을 입장할 수 있는 두브로브니크 패스 1일권 (40유로)을 구매하면, 편하게 둘러볼 수 있다.

2 아드리아해를 따라 크로아티아의 남서부에 길게 뻗어 있는 해안 지역.

3 1808년, 나폴레옹은 공식적으로 라구사 공화국을 폐지했고, 1815년부터 오스트리아 제국 아래 놓이게 된다.

4 필레 게이트를 통과하면 바로 마주치는 프란체스코 수도원 교회는 700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수도사들이 실제로 사용했던 기물과 귀족의 유물을 전시하며, 수도원 내 말라 브라차 약국(Ljekarna Mala Braća)은 1317년에 개원한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약국 중 하나다.

5 라구사 공화국 총독의 관저이자 집무실이었던 궁전. 오늘날에는 15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의 역사적 유물 2만여 점을 소장한 박물관으로 사용된다. 고딕, 르네상스, 바로크 양식이 혼합된 건물 안에는 방과 지하 감옥, 재판소 등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6 12세기에 지은 성당을 1713년 로만 바로크 양식으로 복원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종교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데, 특히 중앙 제단 뒤편의 대형 제단화는 리치아노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7 15세기에 완공된 로브리예낙 요새는 베네치아 공화국에 맞서 도시를 방어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해발 약 37m 높이의 절벽 위에 자리해 아드리아해와 두브로브니크 전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고, 드라마 <왕좌의 게임>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필레 게이트(Pile Gate) 주변은 아침부터 혼잡스러울 수밖에 없다. 관광버스와 우버가 실 새 없이 사람들을 내려주고, 전 세계에서 찾아온 방문객들은 1두브로브니크 성벽(Walls of Dubrovnik)으로 들어갈 채비를 하니까. 게이트 앞 브르살리에 광장(Brsalje Square)의 플라타너스는 이 광경이 익숙한 듯싶다. 방문객 수만큼 많은 나뭇잎을 흔들어 내리찍는 햇살을 가볍게 흘트린다. 두브로브니크의 어원을 찾아보면 ‘참나무 숲의 도시’지만, 그건 아주 오래전 모습일 테다. 이제 구시가를 둘러싼 주된 풍경은 굳건한 석회암 성벽과 성채 그리고 아드리아해의 물결이다.

2달마리아 지역 남쪽의 두브로브니크는 예부터 발칸과 서유럽을 연결하는 아드리아해의 무역 거점이었다. 발칸 내륙에서 생산된 은, 밀랍 등이 이곳을 거쳐 바닷길로 이탈리아에 들어갔고, 서유럽의 직물과 공예품은 동쪽으로 유통됐다. 발칸의 슬라브인은

두브로브니크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나 이탈리아인은 라구사(Ragusa)라고 불렀다. 1358년, 베네치아로부터 독립한 라구사 공화국은 지중해 무역이 활발이던 15~16세기 무역 강국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작은 나라의 영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1667년의 대지진으로 도심 대부분이 파괴되어 침체기를 겪었으며, 지중해 무역의 쇠퇴와 3나폴레옹의 정복, 그 후 세계대전과 혁명의 혼란을 거쳐 라구사는 역사책의 몇 페이지로만 남게 되었다.

두브로브니크 구시가의 매력을 가장 잘 흡수하는 방법은 온종일 두 발로 걸어 헤매는 것이다(일반 차량이 진입할 수 없기에 대안도 없지만). 필레 게이트로 들어서자마자 중심가 스트라둔(Stradun) 양옆으로는 바로크, 르네상스, 고딕 양식의 건물과 좁은 골목, 붉은 지붕이 무대처럼 펼쳐진다. 대지진과 1991년 독립전쟁의 포격도 버려낸 성벽은 원형이 거의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궁전과 성당 등은 세심하게 복원되어

과거를 충실히 재현한다. 크루즈를 포함한 단체 여행객이 몰려드는 오전 10시부터 이른 오후까지는 구시가의 피크 타임이다. 거리와 성벽마다 줄을 잇는 인파가 전 세계적 명소의 위상을 증명한다. 성벽에서 가장 높은 민체타 요새(Minčeta Tower)에서 내려다보는 두브로브니크의 전성기는 지금이 아닌가 싶다. 성벽 안에는 약 1,500명의 주민이 거주하지만, 2025년 기준 연간 방문객이 250만 명이 넘으니 말이다. 그 틈새에서 기념사진이라도 한 장 찍기 위해선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반면, 번잡스러움을 잊고 역사 그 자체를 탐닉해볼 수 있는 공간도 존재한다. 4프란체스코 수도원 교회(Franciscan Monastery and Church)의 회랑이나 5렉터 궁전(Rector's Palace)의 안뜰, 6성모 마리아 승천 대성당(Cathedral of the Assumption of the Virgin Mary)의 제단처럼 수백 년간의 고요가 스며든 자리들이 그렇다.

문득 두브로브니크에서 발견하는 사소한 순간의 기쁨도

찬양할 만하다. 군돌리치 광장(Gundulić Square)의 작은 로컬 마켓에는 가판이 열리고, 놀이터와 농구 코트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이 들린다. 성벽을 걷다 고개를 돌리면 아담한 가정집의 창밖에서 빨래가 펄럭이고 있다. 이렇게 역사의 증거 속에서 호흡하듯 흐르는 삶이야말로 여행자가 느껴야 할 두브로브니크의 진심 아닐까.

관광객이 빠져나간 늦은 오후에는 스트라둔은 물론 성벽 너머 서쪽의 7로브리예낙 요새(Fort Lovrijenac)도 한산해진다. 때에 맞춰 아드리아해를 상징하는 노을을 찾아 요새로 발걸음을 옮겨보자. 질푸론 바다에 붉은빛을 드리운 석양을 보며, 간지러운 바닷바람을 맞는 여유가 두브로브니크에서의 기억을 완성해줄 터다.



To See



Srđ Mountain

스르지산 전망대
두브로브니크 케이블카를 타고 5분 만에 스르지산의 전망대에 오르면 구시가 전체를 조망할 수 있다. 붉은 지붕과 아드리아해, 인근 섬들이 한눈에 펼쳐지는 두브로브니크의 풍경은 시원하면서도 낭만적이다. 전망대에는 레스토랑과 기념품 숍도 들어서 있다. 왕복 티켓 성인 30유로, dubrovnikcablecar.com



Danče Beach

단체 해변
구시에서 벗어나 서쪽으로 약 15분쯤 걸어가야 찾을 수 있는 바위 해변. 두브로브니크 거주자 전용 주차장에서 셋길을 따라 내려가면 찾을 수 있다. 관광객보다 현지인이 자주 찾는 곳으로, 바다 수영과 다이빙을 즐기기에 좋다. 해변 주변에는 작고

오래된 수도원과 묘지, 산책로가 있고, 해 질 녘 풍경이 특히 아름답다.

Rudimila Roter

To Eat



Marangun

마랑군
구시가지 서쪽의 라파드(Lapad) 지구에 위치한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 달마티아의 전통 요리를 현대적으로 되살린 요리를 내며, 아드리아해가 한눈에 들어오는 세련된 공간에서 직원들이 능숙한 움직임으로 응대한다. 전통 화덕 스타일로 문어를 구워 풍미를 살린 옥토퍼스 페카(Octopus Peka), 오랜 시간 소 불살을 부드럽게 졸여낸 옥스 칙스(Ox Cheeks)를 추천한다. 옥토퍼스 페카 39.5유로, 옥스 칙스 31.8유로, @marangun_dubrovnik



Kopun

코푼
구시가지의 명소 중 하나인 성 이냐시오 성당(St. Ignatius Church) 앞의 보슈코비치 광장(Bošković Square)에 자리 잡은 비스트로. 드라마 <왕좌의 게임>에 등장한 예수회 계단과 성당을 바라보는 야외석에서 산뜻하게 점심을 즐겨보자. 전통 수탉을 뜻하는

카푼(capon)과 송아지 요리가 인기. 시기별 와인 페어링 메뉴도 구비하고 있다. 3코스 와인 페어링 육류 메뉴 50~70유로, @kopundbk



Local

로컬
구시가 좁은 골목 사이에서 찾을 수 있는 로컬은 달마티아 전통 페카 요리 전문점이다. 페카는 철제 중 모양의 뚜껑에 고기나 해산물, 감자, 채소를 올리고 화덕에서 약 3시간 동안 조리하는데, 크로아티아에서는 손님을 가장 환대하는 요리로 여긴다. 한번 먹어 보면, 푸짐하고 부드럽고 담백한 맛이 일품이다. 가족이 운영하는 로컬은 식사 시간을 마치 일종의 파티처럼 구성했다. 주인장이 페카의 역사부터 조리 방법까지 친절하게 설명하고, 흥겨운 전통 음악도 들려준다. 현지 식자재를 활용한 빵과 디저트, 웰컴 드링크, 프로슈토 등도 인상적이다. 와인 포함 페카 요리 1인 코스 120유로, dubrovnikeatwithlocals.com

To Stay



Hotel Lero

호텔 레로
1972년에 개관한 4성급 호텔로, 현대적인 객실과 야외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구시가지와 해변 모두 접근이 편리해 두브로브니크 관광의 거점으로 삼기에 적합하다. 120유로부터, hotel-lero.hr



Ston

스톤

고대 로마 시대부터 시작된 채염 (採鹽)은 펠예샤츠(Pelješac) 반도의 길목에 위치한 스톤을 요충지로 만들었다. 14세기에 라구사 공화국은 세르비아 왕국으로부터 이 일대를 사들인 후, 스톤의 염전을 보호하기 위해 철저한 방어 체계를 구축한다. 당시 천연 소금은 8'하얀 황금'으로 여겨질 정도로 귀중했고 소금을 소유하는 국가가 부와 권력도 거머쥐었다. 라구사 공화국은 방어에 용이하도록 스톤을 격자형 도시로 디자인하고 성벽으로 둘러쌌다. 이걸로는 모자랐는지, 언덕 너머 말리 스톤(Mali Ston)까지 잇는 약 7킬로미터의 9성벽까지 세운다. 아예 외부에서 침입할 길목 전체를 막아버린 것이다.

언덕 위로 뻗어 있는 스톤의 벽은 지금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 정작 그 아래의 마을은 외세의 침입 따위는 상상되지 않는 소박한 분위기다. 아직까지는 관광객보다 현지인이 많아서 평화롭고 한적하다. 가파른 성벽을 따라 20여 분쯤 올라

첫 조망 장소에 도착한다.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내려다본 마을의 규모는 고즈넉하다. 바둑판처럼 정리된 골목과 오래된 가옥들이 바로 아래로 보이고 염전과 만이 넓게 펼쳐진다. 골목과 성벽의 안팎으로 사람들이 떠엄떠엄 오가고, 염전과 맞닿은 성벽에는 적재적소에 보루와 포대가 설치되어 있다. 꽤나 고심해 방어 시설을 배치한 듯하다. 성벽 너머에서 햇빛을 머금은 염전이 잔잔히 반짝인다. 염전의 전체 면적은 약 43만 제곱미터. 지중해와 아드리아해 연안에 보존된 염전 중 가장 큰 규모다. 라구사 공화국 시절부터 내려온 전통 수작업으로 생산되는 천연염의 양은 연평균 약 500톤이라고 한다. 일사량이 강하고 기온이 치솟는 7월 중순이 되어야 채염이 이뤄지는데, 그 기간은 길어야 두 달이다. 2,000년 넘게 지속된 그 수고로움을 생각하니 새하얀 소금 덩어리가 몇 톤의 무게처럼 다가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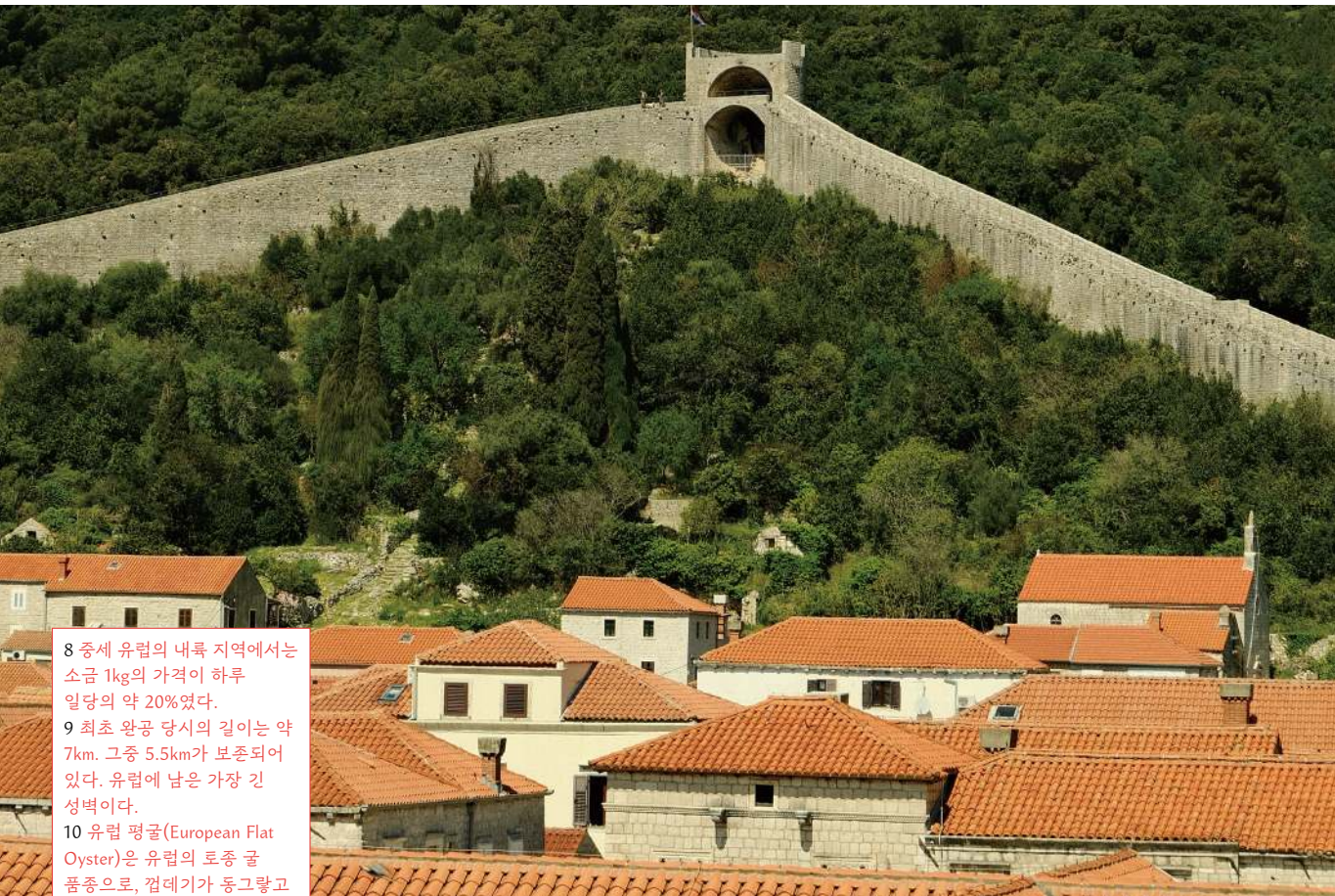
성벽의 다른 한쪽 끝은 말리 스톤에 닿아 있다. 좁은 만이 깊숙이

들어간 해안가에 자리한 어촌이다. 스톤의 소금만큼 유명한 특산품이 말리 스톤에도 있으니, 그것은 바로 굴이다. 민물과 바닷물이 적절히 교차되는 이곳의 앞바다는 굴 양식에 이상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고대 로마의 황제들도 말리 스톤의 굴을 먹었다고 전해진다. 특히 유럽에 몇 개 남지 않은 10유럽 평굴의 산지인데, 품질에 있어서는 크로아티아에서 최고라고.

작은 목선을 타고 말리 스톤의 앞바다로 20여 분쯤 나아가면 굴 양식장에 닿는다. 선상 가옥 같은 형태로, 양식용 밧줄 시설과 방문객용 테라스도 갖췄다. 보통 굴을 2년 6개월쯤 양식한 후 시장에 내거나 레스토랑에 납품한다. 50여 가구가 채 안 되는 마을의 주민 대부분이 양식업을 기반으로 생활하고 있다. 가을부터 봄까지는 싱싱한 굴을 맛보려고 전 세계의 미식가들이 찾아와 양식장과 레스토랑을 차지한다.

양식장의 간이 테이블에 자리를 잡으면, 갓 건져낸 굴과 올리브오일에

살짝 데친 홍합을 내어준다. 굴의 바다 향이 코를 자극하고 빛깔은 생생하다. 레몬즙을 조금 떨어트린 생굴을 한 번에 후루룩 입안에 넣는다. 평굴의 쫄깃한 식감과 독특한 혼연 향이 가득 퍼진다. 여기에 와인으로 행구듯 식사를 마무리하면, 스톤을 찾아와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명확해진다.



8 중세 유럽의 내륙 지역에서는 소금 1kg의 가격이 하루 일당의 약 20%였다.
9 최초 완공 당시의 길이는 약 7km. 그중 5.5km가 보존되어 있다. 유럽에 남은 가장 긴 성벽이다.
10 유럽 평굴(European Flat Oyster)은 유럽의 토종 굴 품종으로, 껍데기가 동그랗고 편평한 부채꼴 모양이다.



To See



Solana Ston

스톤 염전

스톤 구시가지에서 염전까지 걸어서 5분이면 닿는다. 중세의 소금 창고를 개조한 작은 방문자 센터에서 염전의 역사를 알아보고, 전통 채염 방식을 소개하는 영상을 관람할 수 있다. 염전이나 마을 가게에서 소금도 구매할 수 있다. 입장료 3유로

To Eat



Konoba BaKus

코노바 바쿠스

스톤 구시가 중심부 골목에 들어선 바쿠스는 정감 넘치는 로컬 레스토랑이다. 해산물 부자라(buzara, 전통 찜요리) 요리가 전반적으로 뛰어나며, 굴 리소토도 추천한다. 점심 시간에는 골목 양쪽에 차린 테이블 좌석까지 꽉 차기 때문에 피크 타임을 살짝 피해 방문하자. www.bakus.hr



Stonske Zidine

스톤 성벽

유럽에서 가장 긴 방어벽이자 드라마 〈왕좌의 게임〉촬영지인 스톤 성벽은 전체를 걸어볼 수 있다. 주요 조망 장소를 제외하고는 햇빛에 노출되어 있으니 뜨거운 날의 한낮에는 되도록 방문을 피하자. 일부 구간은 경사가 상당히 급한 편. 스톤에서 말리 스톤까지 성벽길로 왕복하는 데 약 2시간 걸린다. 입장료 3~10월 10유로, 11~2월 5유로(두브로브니크 패스 소지자는 입장 무료)



Bota Šare

보타 사레

말리 스톤 항구 바로 앞의 레스토랑. 달마티아 지역에서 여러 유명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사레(Šare) 가문 소유다. 약 500년 된 소금 창고를 개조한 공간에서 전통 레시피 기반의 생굴 요리와 홍합 부자라, 블랙 리소토 등을 낸다. 굴 양식장 투어도 담당하고 있다. www.bota-sare.hr

Split

스플리트

서기 305년,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자리에서 내려왔다. 고대 로마 제국의 11사두정치 체제를 확립해 새 시대를 연 그는, 자발적으로 은퇴한 최초의 황제라는 독특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아직 황제의 권력이 살아 있던 295년경, 그는 이미 아드리아해의 해안가에 은퇴 후 거주할 성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고향 살로나(Salona)와 약 6킬로미터 떨어진 곳이었다. 치밀하게 준비된 은퇴 시설은 빌라와 신전, 광장, 정원, 야외 산책로, 황제의 영묘 등을 포함했고, 성에는 보트 선착장도 달려 있었다. 궁전을 장식할 거대한 대리석 기둥과 12개의 스피그스는 이집트에서 직접 공수해왔다. 이곳의 이름은 디오클레티아누스의 궁전(Diocletian's Palace). 약 3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황제의 거처는 로마 역사상 전무후무한 크기였는데, 그 안에만 3,000여 명이 상주했다고 한다. 황제가 죽고 약 1,700년이 지난 오늘날 이 궁전은 스플리트의 중심이자 인류사의 문화재로 남아 있다.



11세기 말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도입한 제도로, 로마 제국을 동·서로 나누어 각각 정제(아우구스투스)와 부제(카이사르) 2명씩 총 4명이 통치한 체제.

오전 8시, 디오클레티아누스 궁전의 심장이라 불리는 12페리스틸리움(Peristyle, 열주 광장)은 고요만 감돈다. 코린트식 대리석 기둥이 사방에 서 있고, 기둥 사이에서 검은 스팅크스의 조각상이 보인다. 카페 룩소르(Café Lvxor) 앞의 고대 대리석 계단에도 한두 명의 사람만 앉아 있을 뿐이다. 지금이 바로 궁전을 가장 온전히 느껴볼 수 있는 순간이다. 현지인의 발걸음과 대화가 좁은 골목에서 들려온다. 성벽에 박힌 나무 창살을 통해서도 음악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고대 로마의 유적이 평범한 일상의 러전이라는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오밀조밀한 대리석 벽돌이 오랜 세월 중첩되어 형성한 공간은 주민들의 거실이자 여행자의 침실이고, 동네 이웃들이 가꾸는 작은 정원이 되었다. 이것이야말로 디오클레티아누스 궁전의 가장 독특한 면이다.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이 응축된 삶의 초연한 현장. 룩소르 카페 바닥에는 비너스 신전의 터가

있고, 로마 군사들이 행군하던 복도는 기념품을 파는 골목길이 되었다. 몇 시간 후에는 이 궁전으로 수천 명의 관광객이 몰려들 것이다. 북문인 골든 게이트(Golden Gate)를 통과해 페리스틸리움과 황제의 영묘를 둘러본 후 13베스티불(Vestibule)을 거쳐 카페와 레스토랑으로 불비는 리바(Riva)의 화사한 산책로까지, 스플리트의 구시가는 각양각색의 사람들과 함께 또 한 번의 열기를 겪게 된다.

밤이 되면, 천 년의 세월을 버려낸 대리석 골목에는 은은한 조명이 내리고, 열기는 잠잠해진다. 구시가의 밤은 이제 고대 로마 왕궁의 시간에서 14코노바(konoba)의 시간으로 바뀐다. 이탈리아에 트라토리아가 있다면, 달마티아에는 코노바가 있다. 하루의 유흥을 마무리하기에 완벽한 조건을 갖춘 채, 구시가의 밤을 유일하게 밝혀주는 존재. 궁전을 배회하던 여행객들은 코노바 입구에 놓인 메뉴판을 슬쩍 살펴보고는 거리가 내다보이는

레이블에 자리를 잡는다. 메뉴는 한결같다. 레몬즙을 곁들인 문어 샐러드와 해산물 15부자라(Buzara)는 오직 원재료의 신선함만으로 아드리아해의 풍미를 재현하고, 도수 높은 16포십(Pošip) 와인은 강렬하고 긴 여운을 안긴다. 방금 전, 항구를 출발한 거대한 크루즈의 탑승객들은 알 수 없는, 오직 스플리트에서 머무는 사람들의 특권이다.



- 12 황제가 생전에 각종 행사와 의식을 집전하던 너비 13.5m, 길이 27m의 직사각형 야외 광장.
- 13 황제를 만나기 전 대기하던 로비 공간. 원래 높은 원형 벽면에 돔으로 덮여 있었으나, 돔 지붕은 무너져 내렸다. 지금은 소리가 아름답게 울리는 구조를 활용해 여행자를 상대하는 아카펠라 공연이 열린다.
- 14 크로아티아 달마티아 해안 지방의 전통 레스토랑. 가정에서 식료품을 보관하던 지하실에서 유래했다.
- 15 해산물에 올리브 오일, 마늘, 파슬리, 와인 등을 넣어 졸여 낸 달마티아 해안 지방의 전통 요리.
- 16 크로아티아를 대표하는 로종 화이트 와인 품종. 화이트 와인치고는 보디감이 묵직하고 알코올 도수가 높은 편이다.

To See



Bacvice Beach

바츠비체 비치
구도심에서 도보로 약 15분이면 갈 수 있는 바츠비체 비치는 자갈과 암석이 늘어진 해안가에 거짓말처럼 자리한다. 부드러운 모래와 얇은 수심 덕분에 현지의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장소. 특히 바츠비체 해변에서 처음 시작됐다는 피치긴(Picigin)은 이곳에서 빼놓을 수 없는 스포츠다. 여러 사람이 수심이 얇은 바다에 서서 작은 고무공을 손바닥으로 치며 넘기는 공놀이의 일종으로, 여기저기에서 공을 쫓아 사방으로 몸을 날리는 사람들이 진풍경을 연출한다. 세계 피치긴 선수권 대회도 바츠비체에서 열린다고. 흑여 공이 갑자기 자기 쪽으로 날아올 때는 가볍게 쳐 넘겨주는 게 이곳만의 룰이다.



Statue of Gregory of Nin

그레고리우스 닌의 동상
디오클레티아누스 궁전의 북문 바로 앞에서 있는 거대한 청동상. 그레고리우스 닌은 10세기 크로아티아의 대주교였는데, 일반인들이 자국어로 미사를 드릴 수 있도록

교황청과 투쟁하다 멀리 유배까지 가게 됐다. 오늘날 크로아티아에서 어학의 아버지이자 영웅으로 추앙받는다. 동상은 크로아티아의 세계적인 조각가 이반 메슈트로비치(Ivan Meštrović)가 1929년에 제작했다. 동상의 왼쪽 엄지발가락을 만지며 소원을 빌면 행운이 온다는 전설 때문에 그 부분만 닳고 닳아 금색을 띤다.



Marjan Forest Park

마르얀 삼림 공원
스플리트 서쪽 끝에 위치한 마르얀 삼림 공원은 도시의 허파 같은 곳이다. 약 3.4제곱킬로미터 규모의 공원에는 산책로와 전망대 같은 시설은 물론, 해변과 문화재 등도 속해 있다. 구글 지도에서 마르얀 언덕 계단(Marjan Hill Stairs)으로 표시된 지점이 구도심에서 공원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출발점이다. 10여 분간 계단을 올라가면, 첫 번째 전망대가 나온다. 스플리트의 전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인기 촬영 포인트다. 이어지는 공원 산책로 주변으로는 13세기에 지은 로마네스크 양식의 성니콜라스 교회(Church of St. Nicholas)나 15세기에 지은 성 제롬 교회(Church of St. Jerome) 등의 문화재를 만나볼 수 있으며, 군데군데 마련된 벤치에 앉아서 아드리아해를 편하게 조망할 수 있다.

To Eat



Konoba Varoš

코노바 바로시
100년 넘게 이어온 가족 경영 코노바로, 스플리트 구도심의 어촌 마을이었던 바로시의 옛 정취를 풍기는 곳이다. 신선한 해산물과 푸짐한 육류 요리를 전통 레시피로 구현하는 덕분에 관광지 레스토랑이어서 현지인이 자주 찾는 편. 달마티아식 소고기 스테이크 파스티차타(Paštica), 고기를 소시지처럼 다져 그릴에 구워낸 체바피(Čevapi) 등의 대표 요리를 경험해보자. 파스티차타 29유로, www.konobavaros.com



Trattoria Tinel

트라토리아 티넬
캐주얼한 분위기 속에서 달마티아 식 해산물 요리와 이탈리아식 파스타 등을 선보인다. 크로아티아 요리에 익숙하지 않은 방문객에게는 친근하고 쾌활한 주인장이 열정적으로 메뉴를 설명해 줄 것이다. 해산물과 병아리콩을 넣은 뇨끼, 그날그날 들어오는 생선들을 푸짐하게 구워 내는 생선 플레이트(Riblja Plata)로 조화로운 식사를 완성해보자. 구시가의 작은 광장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야외 테이블석에 자리 잡는 게
좋다. 해산물 플래터 70유로,
trattoria-tinel.com



Makarun

마카룬
디오클레티아누스 궁전 내부의
15세기 중정에 자리 잡은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 석조 건물과 조명으로
이뤄진 환경 때문에 스피리트
내에서도 로맨틱한 저녁 식사 장소로
꼽힌다. 크로아티아의 코르츨라
(Korčula)섬 요리를 선보이는데,
레스토랑의 이름도 코르츨라의 전통
수제 파스타 면인 마카루니(Makarunii)
에서 유래했다. 마카루니 파스타를
포함한 합리적 가격대의 세트
메뉴를 추천한다. 크로아티아 전역의
프리미엄 로컬 와인 리스트도
갖추고 있다. 4코스 세트 메뉴 39유로,
와인 3종 페어링 39유로,
©makarun_split

To Stay



Heritage Hotel Ferma

헤리티지 호텔 페르마이
2021년에 오픈한 페르마이는 100년이
넘은 아르누보 빈 분리파 양식의
4층 빌라를 리노베이션한 호텔이다.
크로아티아의 건축가 페타르 세냐
노비치(Petar Senjanović)의 명작으로
꼽히며,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크로아티아의 헤리티지 호텔에
등재되어 있다. 각기 다른 구조의
객실은 현지 아티스트와 디자이너가
제작한 가구와 장식품으로 꾸몄다.
1층 파사드와 입구는 건물의 오리지널
계단과 타일을 그대로 보존해
클래식한 감각을 전달한다. 현지
식자재를 최대한 활용한 조식은
뷔페와 주문 즉시 조리 메뉴로 구성
되고, 비건 옵션도 제공한다.
디오클레티아누스 궁전과 불과 5분
거리에 위치했으나, 관광객 인파에서
벗어나 조용하게 숙박 가능하다.
300유로부터 all.accor.com

Kvarner

크바르네르

크로아티아의 북서부, 이스트리아
반도와 달마티아 사이의 크바르네르
는 바다와 산이 만나는 지역이다.
뒤로는 알프스의 마지막 자락인
우치카(Učka) 산이 병풍처럼
서 있고, 앞으로는 종려나무와 동백이
자라는 따뜻한 해안이 이어진다.
남부 달마티아와 비교해 여유가
넘치고, 역사와 자연, 17미식이
풍성하게 어우러진 덕분에 유럽인
에게는 벨 에포크 감성의 휴양지로
사랑받아 왔다.

크바르네르의 관문 도시는
리예카(Rijeka)다. 정작 크로아티아
제3의 도시이자 가장 큰 항구인
이곳에서 느긋한 휴양을 떠올리기는
쉽지 않다. 부두에는 육중한 화물선과
컨테이너, 크루즈와 요트가 동시
다발적으로 정박하고, 항구 도시
특유의 거칠고 바쁜 움직임이 맴돈다.
남부 달마티아와는 달리, 중부 유럽의
바로크 양식 건축물도 이곳에 특색을
입힌다. 리예카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약 450년간 합스부르크
제국의 지배를 받았기에 오스트리아

와 헝가리의 유산을 품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탈리아와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그 영향도 여전하다.
리예카의 해안선과 평행하게
놓인 보행자 전용 코르조(Korzo)
거리의 리예카 여행의 중심이다.
합스부르크의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시절 건축물이 이어지는
한가운데, 랜드마크 시계탑이
서 있다. 탑의 자리는 본래 중세 시대
도시 성벽의 관문이었으나, 18세기를
거치며 바로크 양식의 화려한 탑으로
재탄생했다. 탑을 통과하면 구시가의
옛 시청사 건물이 보이고, 작은
광장과 카페들 그리고 고대 로마
제국의 유적을 마주친다. 과거의
시간을 좁은 골목마다 꿈꿨 숨겨놓은
듯한 모습이다. 제국주의와 사회주의
그리고 동시대의 민주국가로의
이행. 이렇게 압축된 리예카의 풍경은
트르즈니차(Tržnica, 시장)에서
정점에 이른다. 19세기 후반기
항구 근처 매립지에 조성된 일대를
가리키는 구역이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시절의 네오 바로크식



17 크바르네르는 국제
문화·미식·예술·관광
연구소(IGCAT)가 공식
선정한 2026년 유럽 미식
지역(European Region of
Gastronomy)이다.

국립극장과 클래식한 빌라 건물들 한가운데에서 흥정이 오가는 노천시장이 열린다. 시장 한쪽 1916년에 완공된 아르누보 양식의 혼잡한 수산시장은 아직도 옛 장면 그대로다.

조금은 단단해 보이던 크바르네르 풍경은 리에카를 벗어나면서 변화한다. 서쪽으로 약 30킬로미터 가량 이어지는 해안선을 따라 오파티야 리비에라(Opatija Riviera)의 풍경이 열린다. 도로 옆으로 깎아지른 돌산과 울창한 숲이 해안선까지 내려오고, 그 아래로 반짝이는 아드리아해가 물결친다. 해안가에는 야자수, 선인장, 목련과 동백나무 등 지중해 18아열대 식물이 뽁뽁하게 자라고 있다. 현지인들은 이곳을 프렌치 리비에라나 이탈리아 리비에라에 버금가는, 크로아티안 리비에라라고 자랑스레 말한다.

19세기 말 합스부르크 제국은 오파티야를 중심으로 주변의 해안가를 제국 최고의 19휴양지로 개발했다. 1884년에는 아드리아해 동안 최초의

대형 호텔인 크바르네르 호텔이 문을 열었고, 곧이어 벨 에포크풍의 별장 빌라들이 줄지어 들어섰다. 겨울에도 기온이 온화하고 바다 공기가 호흡기 질환에 좋다는 의학적 평가가 나오자, 유럽의 내로라하는 사람들이 요양과 휴식을 위해 이곳으로 몰려왔다. 이를 테면, 제국의 왕족과 귀족, 작곡가 구스타프 말러, 소설가 제임스 조이스, 극작가 안톤 체호프처럼 말이다. 그들 중 일부는 1911년에 완공된 해안 산책로 룡고마레(Lungomare)를 걸으며 몸을 다스렸을 것이다.

오파티야 도심 중앙부의 슬라티나 분수(Slatina Fountain)는 시대를 잘못 만났는지 이제는 키치한 모양새다. 분수와 마주보는 해안은 멋지고 우아한 풍광을 무기로 산책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산책로는 이 도시를 상징하는 조각상인 갈매기와 소녀상(Maiden with the Seagull)을 비롯해 최초의 고급 별장인 빌라 안지올리나(Vila Angiolina), 오파티야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인 성 야곱 교회(Church of St. James),

이국적 식물이 가득한 중앙공원 등 도시의 핵심으로 뒷걸음치듯 자연스럽게 지나간다.

리비에라의 화려함은 남쪽으로 갈수록 조용히 잦아든다. 밤나무와 벗나무의 마을 로브란(Lovran)을 지나 해안이 끝나갈 무렵, 모슈체니치카 드라가(Mošćenička Draga)가 등장한다. 소박한 어촌의 미소를 띤 이 마을은 아마 리비에라의 가장 예사로운 정취일 것이다. 길게 뻗은 자갈 해변에 띄엄띄엄 사람들이 누워 있고, 작은 항구 앞의 식당 야외 의자에는 바다를 감상하는 노인들이 앉아 있다. 시간의 흐름이 무색한 그런 면모들. 드라가 뒤편 언덕 꼭대기에는 중세의 마을 모슈체니체(Mošćenice)가 이 모든 풍경을 박제품처럼 내려다본다. 산책로와 돌계단을 한 단씩 오를 때마다 오파티야 리비에라가 발 밑에서 더 넓게 펼쳐진다. 관광의 소음이 좀처럼 닿지 않는, 크바르네르의 조용한 전망대. 아드리아 해의 시간은 오래 멈춰 있다.



18 오파티야 리비에라는 우치카 산맥이 발칸 반도 북쪽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어 1년 내내 큰 추위가 없다.
19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은 1889년 오파티야를 공식 기후 치유 휴양지(climate health resort)로 지정했다.

To See



Trsat Castle

트르사트 성 리에카의 역사적 랜드마크 중 하나인 트르사트 성은 도심 동쪽 언덕의 트르사트 구역에 위치한다. 차량을 타고 가거나 561개의 가파른 돌계단을 올라서 도착할 수 있다. 고대 로마 시대에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원형 탑과 중세 시대 크로아티아의 명문가가 건설한 요새가 성의 원형. 1750년 성 전체가 대지진으로 무너졌으나, 19세기에 오스트리아의 백작이 사들여 전체를 네오 고딕 양식으로 재건했다. 오늘날에는 문화 공간이자 휴식처로 사용되고 있다. 테라스와 탑에서는 리에카 시내와 아드리아해가 파노라마로 보인다. 인근의 성모 성당과 함께 리에카의 필수 방문 코스다.



Ribarnica Rijeka

리에카 수산시장 중앙시장(Central Market) 단지 내에 자리한 수산시장은 1916년에 완공된 역사적 건물로 유명하다. 거대한 철골 구조와 유리 돔 지붕을 두른 아르누보 양식의 건물은 리에카 출신의 유명 건축가 카를로

페르골리(Karlo Pergoli)가 설계했다. 내부 기둥과 벽면을 게, 문어, 물고기 등의 조각으로 장식해 예술적 요소를 더했다. 아드리아해에서 갓 잡아 올린 신선한 해산물이 매일 활기차게 거래되고, 현지 주민과 레스토랑 셰프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곳이다.

To Eat



Restaurant Trsatika

레스토랑 트르사리카 19세기 말에 완공한 트르사트 도서관 건물의 1층에 들어선 로컬 레스토랑. 넓은 야외 테라스석에서 훌륭한 전망을 누리며 식사할 수 있다. 합리적인 가격에 푸짐한 양의 음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현지인의 가족 모임이나 외식 장소로 인기 있다. 야외 오픈 키친 그릴에서 구워내는 스테이크와 체바피, 크르크섬의 전통 방식을 고수하는 수제 파스타 슈를리체(Šurlice)가 대표 메뉴다. 스캄피(새우) 슈를리체 14.6유로, 그릴 플레터 24.5유로, restaurant-trsatika.eatbu.hr



Bistro Yacht club

비스트로 요트 클럽 오파티야의 인기 해산물 레스토랑

으로, 크바르네르와 이스트리아 지역 전통 요리를 현대적으로 선보인다. 고등어나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 요리부터 조개 스프, 스캄피 요리까지 다채롭고 신선한 해산물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리소토와 피자 등에는 이스트리아산 올리브오일과 트러플을 가미해 풍미를 극대화한다. 항구 바로 앞의 세련된 공간에서 크바르네르만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빼어난 위치도 장점이다. 새우와 트러플을 넣은 홈메이드 리소토 33유로, yacht-club-opatija.com

To Stay



Hilton Rijeka Costabella Beach Resort & Spa

힐튼 리에카 코스타벨라 비치 리조트 & 스파 아드리아해 북부 크바르네르만의 절경에 들어선 대형 5성급 리조트다. 리에카와 오파티야를 잇는 해안 도로에 자리하고, 모든 객실과 빌라가 오션뷰를 갖췄다. 즉,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언제나 오파티야의 해안선과 바다를 파노라마로 감상할 수 있다는 것.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 네보(Nebo)와 에포레아 스파(Eforea Spa)의 대규모 웰니스 시설은 고급스러운 휴양을 즐기는 데 부족함이 없다. 220유로부터, rijakocostabella.hilton.com

Side Trip

Krk

크로아티아에서 두 번째로 큰 크르크섬은 리예카와 콘크리트 아치교로 연결된다. 리예카 도심을 출발해 크르크섬의 작은 마을 브르브니크(Vrbnik)까지는 차로 약 1시간. 항구 산업 도시에서 외딴 휴식처로 일순간에 환경이 바뀌고, 눈앞에는 포도밭과 올리브나무, 바람에 쓸린 풀과 파도를 품은 바위들이 교차된다. 고대 로마인들은 이곳을 ‘황금의 섬(Insula Aurea)’이라 불렀다. 지중해성 기후 아래 올리브와 와인을 생산할 수 있는 섬의 가치를 알아본 것이다.

야생적 해안가 절벽 위에 포근하게 들어선 브르브니크는 즐라흐리나(Zlahtina) 와인의 고향이다. 크로아티아의 대표적 토착 화이트 와인 품종으로, 이 섬의 척박한 석회암 모양에서만 자라난다. 가벼운 알코올 도수에 약간 짭조름한 뒷맛을 지닌 즐라흐리나는 미각과 후각을 깨우는 음료처럼 여겨진다. 해 지기 전, 야외 테라스에서 아드리아해를 바라보며, 섬에서 방목한 양고기 스테이크와 차가운 즐라흐리나를 곁들이면 황금의 섬이 주는 풍미를 몸소 깨달을 수 있다. 이 맛과 분위기에 취하면 쉽게 빠져나올 수 없기에, 유럽의 여행자들은 크르크섬을 숨은 휴가지로 목록에 올린다.

브르브니크 마을 전체를 걸어서 돌아보는 데는 30분이면 충분하다. 아담한 즈그립니차 해변(Zgribnica Beach)부터 해안 절벽 위의 길을 따라 거니는 산책 코스를 추천할 만하다. 낭만적인 전망을 선사하는 경로는 옛 성벽의 잔재 뒤로 종탑과 예배당이 모여 있는 중심부로 이어진다. 수백 년을 견뎌온 좁은 골목을 걸다 보면, 마치 과거의 한 장면에 들어온 듯한 감정에 휩싸인다.



To Eat

Restaurant Konoba Nada

레스토랑 코노바 나다
1974년부터 50년 넘게 대를 이어 운영되는 레스토랑이며, 즐라흐리나 와인도 생산하는 곳. 돌벽과 나무 바닥으로 마감된 전통 코노바 양이나 아드리아해와 크로아티아 본토를 조망하는 절벽 위 테라스 좌석에서 로컬 음식을 즐길 수 있다. 양젖 치즈와 프로슈토로 구성된 시그니처 애피타이저와 즐라흐리나 와인으로 시작해 새우와 문어 요리, 양갈비 구이 등의 풍성한 요리를 맛보자. 자체 와인 셀러에서는 즐라흐리나 와인과 판매한다. 크르크 양젖 치즈와 프로슈토 플레이트 15유로
www.nada-vrbnik.hr



To Stay

Hotel Vinotel Gospoja

호텔 비노텔 고스포야
크르크섬의 와인 가문에서 운영하는 부티크 디자인 호텔이다. 섬의 양조 문화와 현대적인 호스피탈리티를 결합했으며, 색색의 욕면체 형태의 독특한 외관이 특색 있다. 22개의 객실과 레스토랑, 스파와 수영장도 갖췄다. 호텔 내 레스토랑 고스포야(Restaurant Gospoja)는 로컬 음식과 와인의 마리아주에 신경 쓴 요리를 내고, 자체 와인 테이스팅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180유로부터
www.gospoja.com

호수 비노텔 고스포야
크르크섬의 와인 가문에서 운영하는 부티크 디자인 호텔이다. 섬의 양조 문화와 현대적인 호스피탈리티를 결합했으며, 색색의 욕면체 형태의 독특한 외관이 특색 있다. 22개의 객실과 레스토랑, 스파와 수영장도 갖췄다. 호텔 내 레스토랑 고스포야(Restaurant Gospoja)는 로컬 음식과 와인의 마리아주에 신경 쓴 요리를 내고, 자체 와인 테이스팅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180유로부터
www.gospoja.com